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일~8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일~8월 31일

대내경제 54

<공식경제>

북한 채권, 사실상 거래 중단 상태

<외화벌이>

비밀유지가 중요한 군수공장에까지 외화과제 부과

민간인들의 국경 밀수 단속 완화

<주민생활>

북한 내 마약 거래 확산

북한 내 정보 격차와 주민 통제 강화

북한 군 노동시장 파견...주민들 생활고 심각

<개성공단>

北 개성공단 설비 무단 유출

대외경제 56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 만장일치로 채택

<북중관계>

北 중국과의 높은 무역 의존도

<북러관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 북러관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공식경제>

RFA(8.17), 연합뉴스(8.18)

북한 채권, 사실상 거래 중단 상태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채권은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을 알 수 없다는 보도임. 북한은 1970년대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 차관을 도입해 기계 등을 대량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채무불이행국이 되면서 서방 은행 차관단은 북한의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함. 북한 채권 거래가는 2000~13년까지 액면가 1달러 당 몇 센트 혹은 몇 십 센트에 거래 되었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시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 가격에 변동을 보여 왔다는 설명임.

<외화벌이>

RFA(8.8, 8.25)

비밀유지가 중요한 군수공장에까지 외화과제 부과

비밀유지가 중요한 북한의 군수공장들은 지금까지 사회와 철저히 분리되어 무기생산에만 집중해 왔으나, 심각한 외화난으로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일반 공장기업소와 마찬가지로 군수공장에까지 외과 과제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짐. 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무기를 생산하던 함경북도 청진시 부윤구역의 부윤군수품공장의 군사대호인 317기지(무기생산 공장)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타 기관에 소속된 어선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낙지(오징어)잡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임. 구체적으로 소식통은 이들 어선의 작업량을 포함하여 317기지의 한해 외화과제가 50만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임.

민간인들의 국경 밀수 단속 완화

한 소식통은 2017년 8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 국경경비대에 민간인들의 밀수(강 무역) 행위를 지나치게 단속하지 말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전함. 국경경비대가 밀수업자들로부터

수수료 성격으로 돈을 받고 밀수 행위를 방조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국가가 국경 밀수행위를 묵인하라는 지시를 내릴 만큼 대놓고 이를 양성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임.

<주민생활>

RFA(8.18. 8.29), VOA(8.24)

북한 내 마약 거래 확산

북한에서 마약 거래가 북중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0일 전투’ 기간 중 평안남도의 한 도시에서 마약밀매로 적발된 사람은 200명이고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500명에 달한다고 함. 북한에서는 마약이 ‘21세기의 명약’, ‘현대식 감기약’으로 통용되고, 24시간 공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 수험생들도 사용한다고 함. 특히 북한 내 집권 엘리트 계층들도 마약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약류 제조에서 도매 판매까지 관계된 한 핵심인물이 ‘당과 사법기관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임.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17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아편재배와 마약제조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됨.

북한 내 정보 격차와 주민 통제 강화

올해 3월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15%가 휴대전화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도 심화됐다는 지적임. 코트라(KOTRA),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북한 내 휴대폰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에 국한할 경우 보급률이 약 70% 전후에 달하지만, 평양 외 농촌 지역은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함.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위층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도시는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다고 설명함.

또한 휴대폰의 보급률 증가함에 따라 북한 당국의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한 주민 통제력이 향상됐다고 함. 실제 북한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기기는 중국 기업이 개발·제조하지만 북한 감시용으로 통제가 원활하게 일부 사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군 노동시장 파견...주민들 생활고 심각

북한 인민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장마당 인력꾼들에 비해 싼 노임으로 병사들을 인력(노동)시장에 내몰아 노임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도임. 병사들을 인력꾼으로 쓴 이유는 장마당 인력꾼들에 비해 노임이 훨씬 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사들 또한 부대 바깥일을 맡으면 고용주들이 잘 먹여주기 때문에 인력꾼 파견을 자청한다고 알려짐.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인력시장에서 노임(임금)이 하락해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군부대 병사들에게 일거리를 빼앗겨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함.

<개성공단>

NEWSIS(8.10), RFA(8.16), VOA(8.22)

北 개성공단 설비 무단 유출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내부의 기계설비나 제품 등이 북한 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함. 개성공단에는 우리 기업이 철수하면서 내버려둔 공장의 소형 설비와 제품 등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운영위원회, 개인 노동자를 가릴 것 없이 공단 내 물품을 장마당에 내다팔아 물품이 훼손되거나 유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소식통의 보도임. 때문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돼도 사실상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또한 최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했던 290여대의 버스의 움직임이 위성사직에 포착되었으며 이중에는 개성 공단 밖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습도 포착되었음. 그러나 이들 버스가 무슨 이유에서 움직인 것인지, 또 이런 움직임이 상시적인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대외경제

<대북제재>

중앙일보(8.7), 동아일보(8.9, 8.25), 경향신문(8.15), RFA(8.17, 8.18), 한국일보(8.18), VOA(8.22), 한겨레(8.28)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 만장일치로 채택

7월 4일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이후 33일 만인 8월 5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여덟 번째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되었음.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부과했던 것보다 제재 수위를 높여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철(철광석 포함)과 납(납광석 포함), 수산물 수출도 금지. 금지 품목들은 대중 수출액의 62.6%(16억 5,016만 달러)를 차지하여 상당한 외화수입 차단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 그러나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인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포함되지는 않아 한계를 노출.

미국은 과거처럼 ‘포괄적 위임’ 방식을 취하지 않고 유엔을 통해 직접 대북제재 이행을 점검할 뜻을 밝혔고, 제재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엄격하게 결의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함. 실제 중국은 결의 채택 8일 만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작년 북한산 수산물 전용 통관으로 지정한 훈춘시 취안허 해관을 폐쇄하고, 북한과의 합작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하는 등 제재 이행 조치를 취함.

그러나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수산물 수출의 경우 서해바다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 사이에 해산물을 거래하여 북한 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바꿀 수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총괄하던 기업소나 무역업체들을 개인명의로 소규모 회사로 바꾸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음.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제재 대상이 아닌 의류는 중국 내 생산비용보다 저렴하고 질이 뛰어나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북한 업체에 하청을 맡기는 중국 업체들이 많다고 보도됨. 중국은 대북제재 이행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나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강조. 특히 미국과 일본 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 조치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함.

<북중교역>

연합뉴스(8.3, 8.14), VOA(8.28)

北 중국과의 높은 무역 의존도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과의 거래가 92.5%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함. 중국과의 교역은 2005년 처음 50%를 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 북중

무역 규모는 60억 5,600만달러로 2015년 대비 6.1%증가한 수치임. 북중 교역액은 대중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대중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함.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따라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힘. 한편,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非북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하면 반입을 허용하기로 함. 대중 수입 상위 3대 품목은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구와 부분품, 인조 필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 석유 제품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쌀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함.

〈북러관계〉

서울신문(8.3), 연합뉴스(8.5), 중앙일보(8.22), 뉴시스(8.23), 조선일보(8.23), 동아일보(8.24)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 북러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일 북한의 핵개발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중국, 러시아, 이란에 대한 새 패키지법안에 서명함.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발사에 대응하여 새 결의안을 표결함. 초안에는 북한의 석유, 철광석, 철 등의 거래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었으며, 상임이사국 멤버인 러시아의 의견이 끝까지 변수였지만,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만장일치로 채택됨.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했다고 판단되는 중국·러시아 등의 기관 및 개인 16곳에 추가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국적의 루벤 키라코스안 등 4명의 개인이 제재명단에 오름 시아연방 관세국에 의하면 2017년 상반기 북한으로 석유제품 약 4303톤(약 240만달러 상당)이 수출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 가량 증가한 수치임. 한편,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석유제품은 대부분 중국을 거쳐 북한에 반입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수치는 더욱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에 따라 전면 수입이 금지된 수산물 수입의 빈자리를 러시아가 채울 것이라는 보도임. 러시아 극동 해역에서 나는 해산물은 북한 동행의 해산물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며, 러시아에서는 주로 냉동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 또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국제금융망 이용의 제한을 받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협력회사를 두고 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연합뉴스(8.1), RFA(8.9, 8.21, 8.22), VOA(8.15, 8.16)

아래 표는 8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러시아 (WFP 경우)	2017년 7월	밀가루	밀가루 800t	WFP의 대북사업에 지원된 것이며, 강원도와 양강도 지방의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영양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임.
프랑스 (UN OCHA 경우)	2017년 8월	지원금	28만달러	WFP의 대북사업에 지원된 것이며,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2017년 8월	지원금	630만달러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에게 긴급 달러 투입 - 영양상태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과 치료에 사용될 예정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민간단체)	2017. 6. 19~ 7. 28	밀가루, 종합비타민, 의약품 등	1만달러	중국 연변에 위치한 고아원과 탁아소 지원
카리타스 (국제구호단체)	2017년	온실 건설사업	10개 온실 완공	강원도 법동군, 평안남도 중화군 등에 새 온실 완공
아일랜드	2017년	지원금	600만달러	가뭄과 홍수피해 복구에 사용됨.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8.01] 러시아 대북지원 밀가루 800t 청진항 도착 (연합뉴스)
- [2017.8.03] 트럼프, 북·러·이란 제재 패키지법 서명 (서울신문)
- [2017.8.03] 안보리 대북결의, 北수출 3분의1 봉쇄...내일 표결할 듯 (연합뉴스)
- [2017.8.03] 北 대외교역 내역보니...‘중국없이 못살아’...의존도 3년째 90%↑ (연합뉴스)
- [2017.8.07] 북 수출 33% 차단...원유 봉쇄는 빠졌다 (중앙일보)
- [2017.8.08] 군수공장에도 외화과제 부과 (RFA)
- [2017.8.09] 미주 한인 15년째 북한 어린이 지원 (RFA)
- [2017.8.09] 美 “中 대북제재 이행 촘촘히 감시... 유엔 통해 직접 챙길 것” (동아일보)
- [2017.8.10] "개성공단 설비 뜯겨나가 장마당으로 팔려"...북한 내부 증언 나와 (NEWSIS)
- [2017.8.14] 中, 내일부터 북한산 석탄·철·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연합뉴스)
- [2017.8.15] 유엔, 북한 가뭄 피해 대응 긴급자금 630만달러 지원 (VOA)
- [2017.8.15] 중국, 오늘부터 북한산 광물·해산물 수입 금지 (경향신문)
- [2017.8.16] 프랑스 정부, 유엔 대북사업에 28만달러 추가지원 (VOA)
- [2017.8.16] 개성공단 한국 측 버스 대거 이동...일부는 개성 시내에서 포착돼 (RFA)
- [2017.8.17] 북 수산물,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출 (RFA)
- [2017.8.17] “북 채권, 대북 제재로 수 년째 거래 중단” (RFA)
- [2017.8.18] 대북제재로 북한 채권 몇 년째 거래 중단 (연합뉴스)
- [2017.8.18] 中, 北 수산물 수입 전용 세관 폐쇄 (한국일보)
- [2017.8.18] 북 무역회사, 개인 명의로 쪼개 제재 회피 (RFA)
- [2017.8.18] 북한군 지휘관들 병사를 인력시장에 내몰아 (RFA)
- [2017.8.21] 카리타스, 대북제재 속 올해 북 온실 10개 완공 (RFA)
- [2017.8.22] 아일랜드, 올해 북 가뭄·홍수 600만달러 지원 (RFA)
- [2017.8.22] 중국 하청 북한 의류업 호황...‘대북제재 우회로 될 가능성’ (VOA)
- [2017.8.22] 개성공단 승용차·트럭 100여 대 일제히 사라져 (VOA)
- [2017.8.22] 러시아, 대북 석유수출 1년 새 2배 이상 늘어 (중앙일보)
- [2017.8.23] 北, 수산물 금수로 중업체 타격... 러시아産이 빈자리 채울 듯 (뉴시스)
- [2017.8.23] 美재무부, 北 핵 개발 지원 ‘중·러’ 등 기관·개인 16곳 추가 제재 (조선일보)
- [2017.8.24] 北돈세탁 관련한 곳...美 “1,100만달러 몰수” (동아일보)
- [2017.8.24] "북한 내 마약 거래 확산...집권 엘리트 층도 관여" (VOA)
- [2017.8.25] 美 “중정부도 모르는 北협력기업 100여곳 더 있다” (동아일보)

[2017.8.25] “북, 국경 경비대에 ‘밀수 단속 말라’ 은밀히 지시” (RFA)

[2017.8.28] 중국, 북한과 기업 합작 금지(한겨레)

[2017.8.29] “북, 휴대전화 가입자 증가한 만큼 주민통제력 향상” (RFA)